

종교교육학연구 제43권. pp.113-129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12. 30.

경전수행의 맥락에서 본 통일교 훈독회

이 재 영

선문대학교

<요 약>

세계적 종교들은 창시자의 진리에 대한 언설(言說)을 묶은 경전과 그 경전을 체화(incarnation)하는 방편으로 경전 수행을 한다. 통일교도 마찬가지로 창시자 말씀을 묶은 경전들이 있으며 이 경전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훈독회(Hoon Dock Meeting)가 있다. 훈독회는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교주에 의해 1997년 10월 13일 제정되었고 통일교인들의 미션과 신앙생활의 중심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훈독회의 의미는 (1) 신앙생활의 전통과 문화 상속, (2) 참사랑의 가정 확립, (3) 타락성을 소멸하고 창조본성을 회복, (4) 하나님의 뜻과 일치, (5) 인류평화세계 구현을 위함이다. 이러한 의미를 새기고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훈독회가 단순히 독경(讀經)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의 내면화, 의식화, 인격화,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전 수행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개발을 위해 전통적인 종교들의 경전 수행 방식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 경전수행법 중 유대교의 토라공부, 기독교의 말씀묵상, 불교의 간경수행법 등을 고찰하여 이들 수행법들이 통일교 훈독회에 함의하는 바를 탐구하고자 한다.

핵심 주제어: 진리, 간경(看經), 경전수행, 훈독회

I. 들어가는 말

세계적 종교들은 창시자의 진리에 대한 언설(言說)을 묶은 경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경전에 담긴 진리를 체화(incarnation)하는 방편으로 경전을 읽고 새긴다.¹⁾ 경전을 읽고 새

1) 여기서 경전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기억하고, 해석하고, 되새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공부라 아니라 그 경전에 담긴 진리를 내재화, 의식화, 인격화, 생활화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로 대부분의 종교는 경전을 읽고 새기는 것을 종교 수행의 중요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

물론 불교의 조사선(祖師禪) 전통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수행의 지침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수행에서 경전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말처럼 경전에서 가르치는 의미를 새기라는 것이다. 즉 경전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과서이지 진리 자체는 아니므로 경전이 본래 가르치는 진리를 배우고 깨달으라는 말이다.

석가모니 붓다는 종문사수(從聞思修), 입삼마지(入三摩地)를 가르쳤다. ‘문사수(聞思修)를 쫓아 삼매에 들라’라는 말로써 수행에서 문사수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말하고 있다. 문(聞)은 소리의 들음 즉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고, 사(思)는 사랑분별(思量分別)을 말하며, 수(修)는 문사(聞思)를 통해 상수멸정(想受滅定) 즉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²⁾

불교에는 경전 공부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학승(學僧)이 있고, 수행을 통해 깨닫고자 하는 도승(道僧)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길이 깨달음을 위한 선택적인 길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전 공부를 통해 수행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고, 수행을 통해 경전에 담긴 진리를 이해하고 체화(體化)할 수 있다. 따라서 깨달음을 위해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일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에는 경전 수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훈독회(訓讀會)가 있다. 훈독회는 통일교 창시자의 말씀을 묶은 『문선명 선생 말씀선집』을 포함하여 창시자가 지정한 8대 교재 교본을 읽고 새기는 것으로써 통일교의 종교의례와 종교교육의 중심 위치에 있다.³⁾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은 1966년 통일교의 교리서 『원리강론』을 펴냈고, 이 원리강론을 텍스트로 하여 그 내용을 새기고 적용하기 위한 말씀을 해왔으며, 이 말씀을 묶은 경전들을 읽고 새기는 모임을 훈독회라고 한다.

통일교 창시자는 1997년 9월 1일 뉴욕의 벨베디아 국제 수련소에서 행한 말씀을 통해 “전 통일교인들은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가정맹세를 암송하고 『말씀선집』, 『뜻길』, 『축복과 이상가정』을 읽고 여기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3일 아침에 갖는 기도회를 “훈독회”라고 명명하였다.⁴⁾ 문선명 교주는 성화할 때까지 스스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역별로 초청된 교인들과 함께 매일 아침 5시부터 적게는 두세 시간, 보통 대여섯 시간, 최장 23시간 동안 훈독회를 하였다. 이렇게 긴 시간 훈

2) 윤허용 역, 『능엄경』(서울: 흥법원, 1970), 182쪽.

3) 『말씀선집』은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선생의 설교를 묶은 것이며 615권이 있으며 8대 교재 교본은 교인들의 교육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묶은 책들로 『문선명 선생 말씀선집』, 『원리강론』, 『천성경』, 『가정맹세』, 『평화신경』,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세계정전』 등이다.

4) 오택용, 『훈독회의 섭리적 의의』, 『사보』154호(서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1997) . 121쪽.

독회를 하는 것은 말씀을 새겨서 교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함이며, 통일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을 수립하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통일교에서도 수행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수행에 해당하는 말로 수련(修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훈독회는 통일교의 수련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특히 지도자 수련에서는 강의 혹은 세미나 형식 보다는 통일교 경전인 『원리강론』, 『문선명 선생 말씀선집』, 『천성경』등을 훈독하고 묵상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 글에서는 종교 전통에서 실시해 온 경전 독경(讀經)의 형식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 경전 수행의 맥락에서 통일교의 훈독회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종교전통의 경전 수행은 유대교, 불교, 기독교의 경전 수행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며 이들 종교의 경전 수행의 의미와 형식이 통일교 훈독회에 함의하는 바를 탐구하여 훈독회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종교수행의 전통과 통일교 훈독회

세계적 종교들은 경전을 가지고 있고 종교 의례(儀禮) 또는 교육 시간에 경전의 독송을 통해 경전의 가르침을 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본 글에서는 유대교, 불교, 기독교 등 세 주류 종교의 경전 수행에 대한 의미와 형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맥락에서 통일교의 훈독회에 함의된 의미와 형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유대교의 토라 공부와 훈독회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출현 전이나 후에도 수천 년 동안 단일민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전 토라(Torah)에 대한 권위를 지키고 그에 순명(順命)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70여 년간의 바빌론 포로 시대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고 기원후 거의 2000년간 국토가 없는 디아스포라(diaspora) 유대인으로 살면서도 단일민족성과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왔다. 포로 생활 중에도 유대인들은 회당(Synagogue)에 모여 토라를 공부하고 음식을 나누며 그들의 공동체를 지켜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힘은 그들의 경전인 토라를 읽고 그 토라에서 지시하는 삶을 실천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라”⁵⁾는 성구를 가정교육의 이상

5)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전서』(서울: 보진재, 1987), 이사야 38장19절.

과 실천 사항으로 삼고 토라를 공부하였다. 그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경전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쉼마(Shema)이다.⁶⁾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생명시하며 생활 속에서 말씀을 새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쉼마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당(會堂)은 예배와 학교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와 성서 공부가 이루어졌다. 기원전 70년경에는 로마의 영향을 받아 회당의 별당에서 학교교육의 조직체제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성서를 가르치는 학교의 기능을 했다. 이들 학교에는 벤 하세페(성경의 집), 벤 탈무드(설명의 집), 함미드라쉬(연구의 집) 등이 있고 여기에서 성서의 단계적인 공부가 이루어졌다.⁷⁾ 이 학교들은 율법을 암기하는 것으로부터 율법에 대한 해석과 연구 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했다. 유대인들의 종교교육은 단순한 성서 공부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들의 종교교육은 척박한 환경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힘ियो, 선민의 정신을 이어가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이 토라 공부가 유대인들의 정신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고 그들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햇불이 되어 오늘의 유대인들을 만든 것이다.

통일교 훈독회의 의미는 유대교 쉼마 정신의 의미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창시자 문선명은 통일교회 신도들에게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고 지시하였고 그 훈독회를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매일 실시할 것을 말씀하였다. 매일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훈독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과 준동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린다고 하였다. 통일교 훈독회도 유대교의 토라 공부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훈독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에 열거한 교재-교본을 중심삼고 훈독회의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가족 3대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하는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계와 세계가 동시에 참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 준동할지라고 훈독회의 앞에서는 설 자리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오정착적 기준에서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⁸⁾

6) 쉼마는 성경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내용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7) 정웅섭, 『기독교교육개설』(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2), 20쪽.

8) 천주평화연합, 『천지인 참부모 실제 말씀선포 천주대회』(서울: 천주평화연합, 2011), 미간행 강연문, 46-47쪽.

위 내용은 문선명 교주 성화 일년전 말씀 선포대회에서 행하였던 강연문의 한 구절이다. 이 말씀 문선명 교주 자신이 지상의 삶을 마감한 이후 통일교 신도들이 가야할 길을 제시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지상의 생을 마감해도 자신이 남긴 말씀은 영원하니 그 말씀을 읽고 생활하면서 통일교의 전통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2. 기독교의 말씀 묵상과 훈독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약 70년 이전까지 기독교 초기 공동체에는 아직 성서가 출간되지 않았다. 이렇듯 성서가 출간되지 않은 것은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신도들은 예수를 기리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며 편편이 남았던 예수의 어록을 읽고 이 말씀을 장로가 권면하는 형식으로 말씀 공부를 했다.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고 예수를 따랐던 사도들이 타계(他界)하면서 후손들에게 기독교의 전통과 정신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종말이 지연 되고 한 세기를 넘기면서 기독교의 정착과 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전통의 상속과 교육을 위한 성서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고 구전과 문서로 기록된 예수의 어록을 수집하여 성서가 편집되게 되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성서는 경전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성서는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가진 경서(經書)로서 일반 신도들은 성서를 접할 수가 없었고 성직자들만이 성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비록 일반인들이 성서를 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서를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일반 신도들이 성서를 대할 수 없었던 것은 성서의 권위보다 성직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중세기에 일반 신도들은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일이 어려웠으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수도사들에게 경전 공부와 묵상은 그들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다. 그들은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의 방법을 통한 묵상을 해왔는데 거룩한 독서는 관상의 길로 가는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독서-묵상-기도-관상’의 네 단계로 이어지는 수행의 단계는 가톨릭 수행의 도식이요 표준이 되었다.⁹⁾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생활을 하는 성직자들은 경전의 독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책들을 읽고 필사(筆寫)하는 일에 집중하였다.¹⁰⁾ 중요한 경전의 필사본을 보급하여 수도원 재원(財源)을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분심(分心)과 잡념을 떨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수행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다. 특히 독신 생활을 하는 성직자들에게는 분심과 욕망을 떨치

9) 정원범 엮음, 『영성수련과 영성묵회』(서울: 한들출판사, 2009), 200쪽.

10)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Scotland: Charles Scribner's Son 1970), p.126.

기 위해 무엇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성서를 읽고 필사하는 일은 바로 마음의 집중과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한 수행의 방편이었던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성서는 만인에게 개방되어 평신도들에게도 성서를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던 ‘믿음으로만’ ‘성서로만’ ‘은혜로만’의 개혁정신은 성직자들의 독점물이었던 성서를 만인에게 개방하게 만든 것이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죽은 언어 즉 라틴어로 쓰인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성서를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성서를 평신도들의 손에 넘겨 준 것이다.

종교개혁 이전 기독교 평신도들의 구원은 오로지 성직자의 중보적 역할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것이 종교개혁 이후 평신도 누구나 성서를 읽고 묵상함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평신도들도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臨在)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서를 읽게 되었다.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일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와 하나 되는 수행의 방편이 된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상이라는 말보다 묵상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말씀을 읽고 새기는 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한다. 기독교의 묵상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려는 행위인데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보렌(Rudolf Bohren)은 기독교의 말씀 묵상이란 “나의 길을 인식하면서 나를 감싸주는 자와의 접촉을 추구하고, 찾는 것을 의미하고, 성서의 들음 속에서 현재적 영의 예언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¹¹⁾고 하였다. 기독교의 말씀 묵상의 의미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 시키는 것이고 그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는 타 종교의 명상법과 같은 수행법들이 별로 없고 기도와 말씀 묵상이 수행법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 말씀 묵상의 방법으로 QT(Quiet Time)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새기는 형식이다. 개신교에서는 지금까지의 성직자를 통한 설교 중심의 교육에서 QT를 통해 신도들 자신이 말씀 읽고 새기는 수련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기독교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통일교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였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자신이라고 하였다. 예수와 일체되는 길은 바로 말씀과 하나 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기독교에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말씀의 화육(incarnation)이라고 한다.

통일교에서도 문선명 자신을 실체말씀이라고 하였고 통일교 신도들은 말씀을 혼독하고 실천하는 것이 실체말씀과 하나 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과 하나 되어 살게 될 때 하나님과 “정오정착적 그림자 없는 삶”을 살수 있음을 강조하였다.¹²⁾ 정오정착적 그림

11) Rudolf Bohren, *Predigtlehre* 박근원 역, 『설교학 실천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20쪽.

12) 천주평화연합, 앞의 책, 47쪽.

자 없는 삶이란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살아서 타락성이 없는 순수한 신앙과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

3. 불교의 경전 수행과 훈독회

불교의 전통과 사상이 요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가 수행자 중 중근기 수행자의 정화(淨化)를 위한 수행의 방편으로 고행(苦行), 독송(讀頌), 헌신(獻身)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독송의 산스크리트어 스바다야(svādhyāya)는 문자적으로 ‘자신의 탐구’라는 뜻이다. 스바다야는 경전을 비롯한 영적인 글을 읽고 스스로 그 뜻을 탐구하는 수행법의 하나이다. 불교의 독경 수행은 이 요가의 독송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¹³⁾

불교의 경전 수행은 부처님 당시에 중요한 수행법의 하나였다. 부처님을 따르던 수행자들은 혼자 있을 때나 단체로 있을 때에도 항상 경(經)의 계송을 암송하였다. 부처님 곁을 떠나 먼 곳으로 유행(遊行)하는 수행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계송함으로써 언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을 듣는 마음으로 생활하였다.¹⁴⁾

부처님은 열반에 이르기 전 법을 오래 머물게 하는 칠법(七法)에 대한 말씀을 하였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경에 대한 수행이다. 이 말씀 각 구절의 말미(末尾)에 쓰인 “법이 가히 오래될 것이다”라는 의미는 경전을 수지독송(受持讀誦)하라는 말이다.

다시 칠법이 있으니 모두 들으라. 제 비구여 (1)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법이 가히 오래될 것이다. (2) 부끄러움을 안다면, 법이 가히 오래될 것이다. (3) 경을 읽고 계를 지킴에 게으르지 않으면 법이 오래될 것이다. (4) 앉거나 일어섬에 마음 가운데 경법을 잊지 않는다면 법이 가히 오래될 것이다. (5) 앉거나 일어섬에 고(苦)와 마주하지 않고 싫어한다면 법이 가히 오래될 것이다. (6) 앉거나 일어섬에 경법을 밝히면 법이 가히 오래될 것이다. (7) 독경함을 배우고 마땅히 그 깊은 뜻을 풍송한다면 법이 가히 오래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칠법을 지닐 것이다.¹⁵⁾

초기불교에서 경(經)을 계송(偈頌)하는 것이 개인 수행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진 대승경전 독송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수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 운동이 시작되면서 대승경전이 형성되었고 대승불교를 따르던 수행자들은 대승경전을 부처님 대하듯 소중히 여겨 공양 공경함으로 자신의 수행의 발판으로 삼은 것은 물론이고 중생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 중생의 구원을 위해 경의 암송과 필사본 유통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유포하였던 것이다.¹⁶⁾ 수행자들은 그 어떤 보시보다도 중생을 위

13) 정창영·송방호 편역, 『요가 수트라』(서울: 시공사, 1989), 117-123쪽.

14)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간경 수행 입문』(서울: 조계종출판사, 2012), 33쪽.

15) 大正藏』1권, 165쪽 ; 대한불교조계종 편, 『수행법 연구』(서울: 조계종출판사, 2005), 257쪽.

해 법을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여겼다. 이는 『대반야바라밀다』에 나오는 대승의 경전을 수행하는 10가지 법에 잘 나타나 있다.

(1) 베껴쓰는 것(書寫), (2) 공양함(供養) (3) 남에게 베풀(施) (4) 다른 이의 독송을 집중해서 들음(聽) (5) 스스로 읽음(聽) (6) 이치에 맞게 그 글귀와 의미를 받아 지님(受持), (7) 이치에 맞게 글귀와 의미를 널리 설명함(廣設) (8) 읽고 읽(讀誦) (9) 이치를 고요하게 살펴 봄(思惟) (10) 이해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닦아 익힘(修習)¹⁷⁾

불교의 경전 수행은 불교 수행의 중심에 있고 어떤 종교의 수행법보다 다양하고 체계화 된 수행법들로 독경, 독송, 사경, 간경, 풍송, 송풍, 전경, 서사 등의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다.¹⁸⁾ 이들 경전을 읽는 수행에는 소리를 내서 읽는 독경(讀經)이 있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읽는 간경(看經)이 있다. 독경은 독송(讀誦)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경전의 글귀를 읊조리면서 외는 풍경(諷經), 경전을 소리 내어 읽는 풍송(諷誦)이 있다. 이렇듯 소리 내어 경을 읽는 독경에는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예불이나 의식 및 기도의 일환으로 경을 읽는 경우가 많다.

독경과 달리 소리 내지 않고 경(經)을 보는 묵독(默讀)이 있는데 여기에 간경(看經), 사경(寫經) 등이 있다. 간경을 간독이라고도 하는데 “경전을 본다.”라는 의미이다. 한자 간(看)은 이마(手)에 손을 대고 자세히 본다(目)라는 의미가 있고 경(經)이란 가르침을 담은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간경이란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책을 정성들여 읽고 새기는 수행이다. “붓다가 제시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며, 경전에 담긴 불법의 지혜를 체득해 가는 수행”¹⁹⁾의 방편이다.

사경은 경전 그 자체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하는 수행법으로 정해진 의식에 따라 청결한 마음으로 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럽게 베껴 쓰는 수행법이다. 때로는 절 수행과 함께 병행하는데 하나의 경전을 택하여 경전의 글자 한자를 쓸 때마다 절을 한 번씩 올리는 일자일배(一字日拜), 경전 한 줄을 베껴 쓴 뒤 절을 세 번 올리는 일행삼배(一行三拜) 등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다.²⁰⁾

불교의 경전 수행법은 이렇듯 다양하지만 경을 읽고 새겨야 한다는 같은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독경, 간경, 풍경 등의 단어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간경 혹은 간독이라는 말로 통칭하고 있다. 수행의 의미와 목적으로 볼 때는 경전을 읽고 새긴다는 의미에서 간경으로 통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²¹⁾

16) 위의 책, 37-38쪽.

17) 위의 책, 40쪽에서 재인용.

18)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수행법 연구』, 247쪽.

19)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간경 수행 입문』, 간행사 중에서.

20) 위의 책, 47쪽.

고명석은 대한불교조계종 출판 『수행법연구』에서 간경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²⁾

- 1) 마음을 밝혀서 마음 가운데 경전 말씀이 명백히 드러나게 하여 마음과 경이 상통하게 하는데 있다.
- 2) 경전 속에서 붓다의 마음을 알아내어 부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데 있다.
- 3) 경전을 수지독송하여 경전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 진실성을 찾아내는 데 있다.
- 4)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켜 경전의 지혜를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
- 5) 경전은 수행의 기초로서 경전의 가르침대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6) 경전을 이해하므로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 7) 경전을 수지독송하여 부처님의 말씀이 몸과 마음에 배게 한다.
- 8) 간경을 통해 글의 맛을 알게 되고 여기서 관조의 힘, 내면을 보는 힘으로 나타난다.
- 9) 간경을 통해 억눌린 마음과 업장을 해탈하여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해 준다.
- 10) 대중생활에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
- 11) 신·구·의 삼업(三業)을 깨끗이 하며 업장을 소멸한다.

위 간경의 목적을 통해 경전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통해 깨달음과 지혜를 얻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간경은 경전의 말씀을 체화(incarnation)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말씀을 체화한다는 의미는 말씀을 몸에 배이게 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몸에 배어 있던 습기(習氣)나 업장(業障)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교의 경전 수행의 의미는 불교 명상법의 두 가지 즉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에서 지향하는 맥락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경전수행의 의미는 사마타에서 지향하는바와 마찬가지로 집중과 위빠사나에서 지향하는 지혜의 계발이다. 사마타 수행을 통한 집중을 계발하게 되면 마음의 고요함과 평정심을 갖게 되고,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지혜를 계발하게 되면 도(道)와 과(果)를 성취하게 된다.

통일교 훈독회에는 사마타에서 지향하는 마음의 정화와 위빠사나에서는 지향하는 지혜를 함의하고 있다. 훈독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살게 될 때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되며 무지(無智)에서 벗어나 지혜를 증득하게 된다.

21) 위의 책, 48쪽.

22)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저, 『수행법 연구』, 342-343쪽.

Ⅲ. 종교경전 수행의 맥락에서 본 훈독회의 함의

1. 통일교 훈독회(訓讀會)의 의미

통일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 하나님의 아래 하나의 세계’ 즉 천일국(天—國)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 천일국 실현을 위한 첫째 조건이 개성완성이다. 이 개성완성의 길은 자아주관(自我主權)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통일교인들에게 준 생활 지침 첫째가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는 말씀이다. 문선명 교주는 천일국 백성의 길로써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3대권을 이루어 살며 4대심정권을 완성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종적인 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둘째 “몸과 마음을 통일하여 살아라.”는 말씀이다. 몸과 마음의 통일을 위해서는 양심을 앞세워 살아야 함을 말씀하였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로 통일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도 일찍이 하늘 길을 결심하면서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는 표어를 걸어 놓고 비장한 각오로 출발했습니다. 하늘은 벌써 여러분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길잡이로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여러분의 스승보다 먼저 여러분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대신 자리에 세워 놓고 그림자 없는 정오정착적인 삶으로 절대 복종의 길을 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마음과 몸의 공명권을 이루어 통일을 완성할 것입니다.²³⁾

통일교의 마음과 몸의 통일을 위한 수행법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훈독회다. 훈독회는 통일교 문선명 선생의 말씀을 묶어 놓은 경전을 읽고 새기는 모임으로 1997년 10월 13일 문선명 선생에 의해 제정되었고 통일교의 미션과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문선명 선생은 훈독회를 통일교의 전통과 통일교인들의 생활방식(Life Style)으로 제시하였고, 선생 스스로 매일 훈독회를 이끌며 모범을 보였다. 문선명 교주가 성화(聖和) 할 때까지 강연이나 훈독회에서 3년여 동안 최후의 유언처럼 훈독하였던 말씀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이다. 이 말씀에서 인류에게 주는 유언(遺言)이라고 하면서 훈독회를 전통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여러분! 참부모님께서는 벌써 인류를 위한 유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일생에 여섯 일곱 번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옥고를 치루면서도 승리하여 준비한 유언서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교재 교본으로 여덟 종류의 책을 남겼습니다. 권수로 말하면 1천여 권이 넘는 분량입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 『원리강론』, 『천성경』, 『가정맹세』, 『평화신경』,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세계경전』 이렇게 여덟 종류의 서적입니다. 이 교본들은 여러분이 영계에 들어가서

23)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편, 『평화훈경』(서울: 성화출판사, 2007), 88쪽.

도 읽고 공부해야 할 책들입니다. 결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늘이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천도를 가르치는 교재 교본이기 때문입니다.²⁴⁾

모든 축복가정들은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훈독 교육을 매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원리교육, 참부모님께서 주신 교재-교본 교육, 참부모님 자서전 내용 교육, 그리고 원리 본체론의 절대성(絕對性)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²⁵⁾

위 말씀을 중심으로 통일교 훈독회의 의미를 고찰하면 첫째, 신앙생활의 전통과 문화를 상속하기 위함이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은 성화(聖化) 이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였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문선명 교주의 인류 구세(救世) 사업에 대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인류가 가야할 길을 다 제시하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훈독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 문선명 교주는 훈독회를 제정하면서 “훈독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팔고 사는 모임”이라고 풀이하였다. 여기서 팔고 사는 모임이란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전도(傳道)하라는 의미를 갖는다.

‘훈독회’는 이복에서 있었던 단순히 공산주의 사상을 읽고 잊어버리는 시간의 ‘독보회’와는 달리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다. ‘훈독회(訓讀會)’에서 훈(訓)자는 말씀(言)과 강(川)이 합하여진 글자이다. 강(川)이란 생명과 영원성이 있으며 국경이 없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훈(訓)이라는 단어는 참아버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생명이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讀)이라는 단어는 말씀(言)과 판다(賣)는 뜻이 합하여진 글자로서 ‘말씀을 판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²⁶⁾

둘째, 참사랑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다. 통일교가 바라는 궁극적 세계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 완성과 이상가정의 확장을 통한 이상세계 즉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이다.²⁷⁾ 이 이상가정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교는 천국의 기본 단위를 가정으로 보고 있다. 가정에서 실제적인 천국을 이루지 않고는 지상과 영계에서도 천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훈독회를 통해서 참사랑의 이상 가정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타락성을 소멸하고 창조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말씀은 악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고 타락성을 소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훈독회를 통하여 타락성을 소멸시키고 마음을 정화하여 인간의 창조 본성인 참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기독교 성경에서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²⁸⁾는 의미와 같다.

24) 통일교 편, 『천지인 참부모 정작 말씀실체 선포』, 『통일세계』제 474권, 11월호(서울: 성화출판사, 2010), 48쪽.

25) 위의 책, 49쪽.

26) 오택용, 『훈독회의 섭리적 의의』, 『사보』 앞의 글. 122쪽.

2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편, 『천성경』(서울: 성화출판사, 2013), 489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넷째,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통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한 목적이다. 혼독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목적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인간 타락성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성의 인간이 된 것으로 자기중심성을 깨고 하나님 중심성의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과 일체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 통일교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체된다는 것은 심정적 일체를 의미하며 혼독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심정일체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독회는 인류평화를 이루는 길이 된다. 문선명 교주는 자신이 남긴 말씀을 묶은 교재교본은 “하늘이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천도(天道)를 가르치는 교재교본”이라 하였고, 혼독회는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정(One family under God)의 뜻이 완성된 천국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였다.²⁹⁾

2. 종교 경전 수행에서 본 혼독회의 함의(含意)

각 종교의 수행의 형태와 그 의미는 조금 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종교의 수행은 진리를 체득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교는 율법의 가르침을 새기고 실천하기 위함이고, 기독교는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여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목적을 “탐진치(貪嗔癡) 삼독(三毒)에 대한 계정혜(戒定慧) 삼학을 닦아나감을 통해 열반을 증득함을 목표”³⁰⁾로 하고 있다.

유일신 인격신을 신봉하는 타력신앙(他力信仰)의 종교와 깨달음과 해탈을 위한 자력신앙(自力信仰)의 종교 수행의 목적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유대교, 기독교와 같이 유일신을 신봉하는 종교의 수행의 목표는 믿음을 통한 신과의 합일이다. 유대교의 카발라 수행은 의식의 세계를 깊게 하여 야훼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것이며, 기독교의 관상명상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관상하여 그와 하나 되는 것이고, 이슬람 수니파의 수피춤은 춤을 통해서 신께로 나가는 문이 열리고 자아의 소멸을 통해 신과의 합일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유일신을 신봉하는 종교의 신앙을 타력신앙이라고 하는데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자력 수행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노력 없이 신과의 합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유일신을 신봉하지 않는 불교, 도교, 등의 수행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다. 즉 깨달음

28) 앞의 책, 『성경전서』, 에베소서 6장 11절.

29) 통일교, 『천지인 참부모 정착 말씀실체 선포』, 『통일세계』, 앞의 책 48-49쪽.

30)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수행법 연구』, 244쪽.

을 통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교 수행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삼학(三學) 즉 계정혜(戒定慧)를 수행하여 삼법인(三法印) 즉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자아가 무상, 고, 무아의 존재임을 깨달음으로 고통으로 벗어나 해탈의 경지를 증득(證得)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을 위한 종교나 깨달음을 위한 종교 수행의 목적에는 공통적으로 ‘자유’, ‘깨달음’, ‘의식의 확장’ 등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개념들은 개념을 형성하는 하위 개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수행자의 종교적 신념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각 종교마다 종교적 집단적 주관성, 개인의 주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신론의 종교 즉 인격신을 숭배하는 종교 수행에서의 자유와 해방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자기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을 위한 자유’가 된다. 즉 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신에게 속하는 것, 신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자유로 가는 길이 된다.³¹⁾ 신에게 속하는 것을 자유라고 보는 것은 나의 존재는 신과 분리되어서는 존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신과의 관계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고 신을 벗어나서는 ‘나’는 비존재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신론의 종교 즉 자아의 깨달음을 위한 종교에서의 자유는 절대자나 어떤 존재자에게 의존된 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 진정한 자유란 어떤 대상, 절대자에게까지도 의존하지 않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될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깨달음은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그 깨달음의 경험과 이해에는 종교마다 차이가 있다. 깨달음 즉 각성 현상의 경험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의미는 각각 다르게 받아드린다. 기독교에서의 자각에 대한 경험은 신의 현시(顯示)와 신의 뜻에 대한 이해라고 본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존재가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임을 깨닫는 것이다. 즉 존재의 본성(本性)과 공성(空性)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깨달음의 공통점은 자아에 대한 부정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존재의 부정은 신 앞에 자아에 대한 부정이고, 불교에서의 자아에 대한 부정은 자아의 실체에 대한 부정이다. 무상 무아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아의 실체는 없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의식의 변화 혹은 변성(變性)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의 의식은 욕구에 의해 형성된다. 심리학자 마슬로(Abram Maslow)가 인간의 욕구의 단계에서 밝혔듯이 생리적인 욕구에 의한 의식은 표층세계를 지향하는 범위 안에 머물러 있게 마련이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욕구는 자아실현을 넘어서 자기초월의 욕구를 지향하는 것이다.³²⁾ 인격적 신

31) Thomas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anFrancisco: Happer & Row, 2001) p. 88.

32) Bruce W. Scotton, Allan B. Chinen, John R. Battista, Ed. *Textbook of Transpersonal and Psychology*, 김명권 외 역, 『자아초월 심리학과 정신의학』(서울: 학지사, 2008), 88-91쪽.

을 믿는 종교의 의식의 변화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지만,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의 의식의 변화는 자아에 대한 공성(空性)과 무아(無我)에 대한 인식을 넓힌다. 이러한 변화는 인격적 신을 믿는 종교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나 자아의 실체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된다.

경전 수행은 개인 수행의 방편이며 진리를 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불교 수행이란 개인 수행의 차원에서 무명으로부터 탐·진·치 삼독(三毒)에 대한 계·정·혜의 삼학을 닦아 나감을 통해 열반을 증득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³³⁾ 한편 경전 수행은 중생의 구원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만약 법을 중생하여 제도하지 않으면 필경 은혜에 보답하는 자라 할 수 없음이라, 법을 전하는 다섯 자기 방법이 있으니, 수지(受持), 간독(看讀), 풍독(諷讀), 해설(解說), 서사(書寫)가 그것이다. 안과 밖으로 보호한 즉 불법승 삼보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³⁴⁾라고 하였다.

통일교의 혼독회도 위에서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 깨달음, 의식의 확장 등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통일교 혼독회는 예전적인 것과 선교적인 차원에서 강조하지만 개인적인 수행 차원의 혼독회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다. 이렇듯 혼독회가 수행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히 주술적 차원의 독경이 될 수 있다. 주술적 차원의 혼독회도 불교 사마타의 수행의 의미처럼 집중력, 평정심 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독경만으로는 말씀의 내면화, 의식화, 생활화가 어렵다고 본다. 말씀이 마음의 심층에 도달하여 통일교 교리에서 강조하는 본심과 양심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유대교, 기독교, 불교 등의 전통 종교의 경전 수행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 신앙 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과 심정일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심정일체가 되기 위한 수행으로 가톨릭의 관상명상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의 관상의 길은 오리게네스(Origenes), 그레고리우스(Gregorius) 등이 말한 정화(淨化)-조명(照明)-일체(一體)의 길이다.³⁵⁾ 즉 마음을 정화하여 그리스도의 조명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것이다. 이 관상의 길은 통일교 신앙 성장의 궁극적 목표인 하나님과 심정일체가 되는 길과 일치한다. 통일교 『원리강론』의 부활론(復活論)에서 말하는 부활의 단계 즉 행의 시대(行義時代), 신의시대(信義時代), 시의시대(侍義時代)는 가톨릭의 관상의 단계와 일치한다.³⁶⁾ 관상의 마지막 단계 일체의 시대는 부활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심으로 일체되는 시의시대(侍義時代)와 같은 의미이다. 가톨릭의 관상명상은 물론 경전 수행인 레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개신교 묵상법인 QT(Quiet Time) 등의 수용도 통일교 혼독회를

33)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수행법 연구』, 244쪽

34) 『한불전』 8권, 596쪽.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수행법 연구』, 위의 책 245쪽에서 재 인용.

35) 박노열, 『관상기도』(서울: 나뉘, 1907), 83-86쪽.

35) 대한성서공회편, 앞의 책, 요한복음 14장 20절.

3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편, 『원리강론』(서울: 성화사, 1994), 191-193쪽.

심화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IV. 맺는 말

종교의 경전 내용의 의미를 새기지 않고 단순히 읽기만 한다면 문자주의나 기복주의 신앙이 될 수 있다. 경전에 담긴 진리의 의미를 새기고 체화하기 위해서는 수행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경전을 읽고 내면화, 의식화, 인격화, 생활화하기 위한 수행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경전을 엄불하듯이 읽는 것도 수행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 경전에 담긴 진리의 뜻을 새기지 않고 주문을 외듯이 경전을 읽는 것은 사마타 수행 초기 단계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전을 집중해서 읽는다면 그 순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잡념이나 망상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를 새기지 않고 단순히 경전을 읽게 되면 표층의 의식세계에 잠시 자극을 주었다 사라질 뿐이고 심층의 의식 세계에서 공명을 일으키지 못한다. 따라서 깊은 경전 내용의 통찰과 천착으로 깨달음과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수행 차원에서의 경전을 읽어야 한다.

석가모니 붓다가 열반하기 전 제자들에게 유훈으로 남긴 말이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이다.³⁷⁾ 통일교 문선명 교주도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유훈으로 남겼다. “양심의 소리를 스승으로 삼아 살아라.”이고 “말씀을 혼독하여 참사랑의 발광체가 되라”고 하였다.³⁸⁾ 말씀 혼독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시는 삶 즉 시천주(侍天主)를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일교 혼독회는 통일교 신앙인들의 의례(儀禮)이고 생활방식이다. 그러나 단순히 관습적 의례로써 경전을 혼독한다면 심층세계에서 일어나는 심정을 유발할 수 없는 것이다. 통일교의 인간 완성의 기준은 하나님과 심정일체 되는 것이다. 혼독회를 통한 하나님과 심정일체가 되려면 먼저 마음을 정화하고 마음을 밝혀 타락성을 소멸시켜야 한다. 타락성은 인간의 의식에 뿌리박힌 탐·진·치이다. 탐·진·치가 있는 한 심정과 양심의 유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타락성으로부터 벗어나 통일교가 지향하는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을 위해서는 혼독회의 방식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주류 종교 전통의 경전 수행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혼독회 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37) 전재성 역주, 『디가니까야』(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1), 734쪽.

3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편, 『평화혼경』, 278쪽.

참고문헌

-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전서』. 서울: 보진재, 1987.
-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수행법 연구』. 서울: 조계종출판사, 2005.
- _____. 『간경수행 입문』.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2.
- 무비 스님. 『화엄경 강의』. 서울: 불광출판사, 2001.
- 박노열. 『관상기도』. 서울: 나뉘, 2009.
- 세계경전편찬위원회 편. 『세계경전』. 서울: 국제종교재단출판국, 1994.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편. 『원리강론』. 서울: 성화사, 1994.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천성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세계통일자정연합. 『평화훈경』. 서울: 성화출판사, 2007.
- 윤허용 역. 『능엄경』. 서울: 흥법원, 1970.
- 전재성 역주. 『디가니까야』.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1.
- 정웅섭. 『기독교교육개설』.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2.
- 정창영, 송방호 편역. 『요가 수트라』. 서울: 시공사, 1989.
- Rudolf Bohren, 박근원 역. 『설교학 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 Bruce W. Scotton, Allan B. Chinen, John R. Battista, Ed. *Textbook of Transpersonal and Psychology*.
김명권 외 역. 『자아초월 심리학과 정신의학』. 서울: 학지사, 2008.
- Groome Thoms,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anFrancisco: Happer & Row Publish, 2001.
-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Scotland: Charles Scribner's Son, 1970.
- 오택용. 「훈독회의 섭리적 의의」. 『사보』. 154호, 9-10월호. 서울: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1997.
- 통일교 편. 『통일세계』. 제 474권 11월호. 서울: 통일세계 편집실, 2010.

원고접수일: 2013년 11월 8일 심사일: 2013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연구자소개: 이재영

- ① 전공: 종교교육학 / 소속: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 ② 관심영역: 영성계발, 종교수행, 예배와 설교, 교회교육
 - ③ 주요논저: 『통합종교교육론(2010)』, 『가정교회 시대의 예배와 설교(2008)』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 메시지 전달에 관한 연구(2008)」 등
 - ④ E-Mail : jaeylee2@hanmail.net
-

Abstract

The Unification Church's Hoon Dock Meeting from the View Point of Coherence of Practicing Scripture

Lee, JaeYoung

Sun Moon University

Unification Church has a number of scriptures which complied the words from the founder. In addition, there is a meeting called Hoon Dok Meeting which practices the scriptures. This meeting was first established by Sun Myung Moon, the founder of Unification Church, in October 13th, 1997. This meeting has an important role in Unification Church's mission and religious belief of the church members.

Hoon Dok Meeting has several important purposes: (1) the inheritance of tradition and culture of the religious life (2) the establishment of a family with True Love (3) to blot the innate depravity out and to restore the nature of Creation (4) to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5) the realization of world peace. In order to make these meanings a way of life, this meeting should go beyond just reading a scripture. In addition, in order for internalization, conscientization, and personification of God's Word to be a part of one's life, a way of practicing scriptures has to be developed. For the development to happen, the traditional ways of Judaism, Catholic, Buddhism's practicing scriptures should be accepted.

Key words: truth, reading scripture, practicing scripture, Hoon Dock meeting